

大學教育의 分業

大學의 임무를 敎育·研究·社會奉仕로 差別함은 상식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명이 처음부터 한꺼번에 大學에 부과된 것이 아니었음은 大學 발전의 발자취를 훑어보면 이내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大學敎育의 목표로 公認된 순서도 敎育—연구—사회봉사 순으로 되어 있다.

大學 사명의 變遷을 역사적으로 볼 때, 敎育은 대체로 19세기까지의 근대 大學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研究는 19세기에 도입된 개념이며, 社會奉仕는 주로 20세기적인 착상이다. 다소 말장난같은 흠을 무릅쓰고 위의 세 가지 단계의 大學을 나타내는 영어 명칭을 적어보면 각각 miniversity, university, multiversity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역사적인 시각으로 大學을 본 것이지만 지리적인 안목, 즉 나라에 따라서도 그 특색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敎育의 秀越性을 철저히 달성하기 위한 전통은 주로 英國에서 뿌리내렸고, 近代의 의미의 研究가 大學의 임무로 尙상되기 시작한 전통은 獨逸을 중심으로 꽃피었는가 하면, 大學이 갖는 資源과 能力을 사회 각 분야 발전에 직접 기여케 하는 社會奉仕의 기능은 주로 美國에서 열매를 맺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임무의 다양화와 더불어 大學이 다루는 學問 분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로 확대되어 왔다. 초기 大學이 다룬 과목은 불과 몇 개가 안 되었지만, 학문연구의 깊이 못지 않게 그 분야도 복잡하게 分化해 온 것이다. 그러나 모든 大學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목의 敎育과 연구를 수행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래서 大學들은 자기 자신이 잘 감당할 수 있는 분야와 과목을 선정하여 資源 利用의 效率化를 기하러 한다. 그래서 高等敎育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자연스럽게 分擔 내지 分業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分業은 지역에 따라 생겨날 수도 있다. 鑛山 지대에 자원 관련 학과가 성하거나 鎔鑄공업 지대 인근에 금속공학이, 해안 지대에 해양학이나 수산학이 주요 분야로 등장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또 효율을 위한 人爲의 분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우리 주위에서 가끔 들리는 特性化 大學이라는 말도 대체로 이런 등속의 것이리라. 투자의 중복을 피함으로써 국가적인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취지이다. 지금까지의 특성학과 지정이 크게 성공하였다는 증거는 없지만, '분담'이라는 아이디어를 도입한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分業의 着想이 진실로 규모있게 적용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 때문에 소홀히



서울大 總長 金 鍾 云

다뤄져 결국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 그것은 이 글의 머리에 적은 大學의 使命 또는 目標에 관한 분담이다.

교육·연구·사회봉사라는 대학의 목표가 모든 대학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어떤 대학은 다루는 과목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敎育 측면만을 분담해야 하는 학교가 있어야 한다. 어떤 대학은 敎育에다 研究라는 임무를 추가할 수 있는 대학이 있다. 또 어떤 대학은 여기에다 社會奉仕까지를 결합할 수 있는 대학이 있다.

그렇다면 요컨대 대학은 대충 3 단계의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교육을 전담하는 miniversity, 교육과 연구에 치중하는 university, 교육·연구·사회봉사를 포괄하는 multiversity가 바로 그것이다.

국가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이 3 단계 유형의 구성 비율은 1 단계가 가장 많고 2 단계가 그 다음이며 마지막 단계에 속하는 대학의 수효가 가장 적어서 피라미드형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이러한 임무와 목표의 분담은 대학 설립자의 의사결정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즉, 각 단계는 각기 다른 규모, 시설, 조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높은 단계로 갈수록 투자 규모가 커져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分業을 구체화하는 기구조직은 바로 大學院이라는 기관이다. 대학은 大學院과 여기에 부속된 기관을 통해서 敎育·研究·社會奉仕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마지막 단계가 1·2·3의 목표를 공유하고, 2 단계는 1·2를 겸유하지만, 1 단계는 1의 목표, 즉 교육만을 지향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서는 위에서 말한 分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라미드형의 安定性 構造가 일그러져 無秩序한 것이다. 大學院의 무분별한 설치와 팽창은 低質 학위소지자의 양산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학문적 수월성 유지도 큰 문제이지만, 대학에 유입되어야 할 우수 敎授要員의 확보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 害毒의 파장은 실로 중차대하다. 大學院이 유휴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학교 재정에 보탬을 주는 기관 정도로 전락한다면 일을 크게 그러치게 되므로 이 방면의 分業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